

—Primary Nursing과 Hospice Care는 왜 필요한가—

이 경 심

메리놀병원 감독간호원

요즘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병원의 複雜한 의료기의 시설에 불안을 느낀다. 가중해서 병원 종사자들이 기계적으로 이리거라, 저리거라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고 지시를 내릴때 약한 병든몸은 保護者로부터 부축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인다. 행여나 병원으로부터 팔세를 받을까 싶어서이다. 그리하여 입원을 하게되면 이웃의 낯선 환자들과의 접촉및 의사간호원의 쌀쌀한 문진과 지시는 계속 약한 병든이들을 불안하게한다. 항상 이들의 첫 인사말은 “잘 봐주이소 병원에서 가장 약한 사람아닙니까”라고 힘없이 부탁한다. 이들은 입원기간 동안 仁術을 기대하며 회복될것인지 악화될것인지의 엇갈린 상반된 마음속을 의료인들은 어떻게 읽어주며 도와줄것인가. 우리 간호원들은 학생시절에 전인간호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배워왔으나 현실적으로 볼때 의료인구의 增大와 더불어 병원에서는 거대한 의료시설의 投資에 비해 간호인력은 기본처치의 補助를 할수있는 정도로만 유지시키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중심보다 처치중심으로 의료가 배풀어지기 쉬우므로 전인간호의 遂行이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중에서 Primary Nursing과 Hospice Care의 시도는 모험적이겠지만 시도해 볼만한 좋은 전인간호방법이다. Primary Nursing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간호방법이다.

Primary Nursing이란 환자가 입원하면 최초로 접촉되는 간호원 즉, Primary Nurse에 의해 입원기간동안 24시간의 계속적이고 안전한 Total Care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遂行하는 환자중심의 전인간호를 말하며 Primary Nurse는 수간호원으로부터 適當한 환자수를 配當받게 된다. 이때 Primary Nurse는 입원환자를 맞이하여 “나는 당신이 퇴원할때까지 총 책임을 지고 간호를 해줄 담당간호원이다”라고 紹介하므로써 환자로 하여금 낯선 병원환경의 불안으로부터 안도감을 갖게 해준다.

이리하여 Primary Nurse와 환자는 상호 “나의 간호원”과 “나의 환자”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Primary Nurse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Primary Nurse는 환자중심의 간호를 위해 평소의 생활습관 병력 현재의 불편감등 肉

体的 精神的 情緒的 社会的 문제와 보호자로부터의 건강정보를 蒐集하며 전문서적과 임상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건강문제와 관련된 資料 蒐集의 사정이 끝나면 나의 환자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제를 포함시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고려한 看護 診斷을 내린 후 이에 적합한 간호계획을 세운다. 이때 간호계획을 의논하여 최종적인 환자 중심의 간호계획을 세워서 간호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投藥 처치 검사등을 직접 수행하고 도운다. 그래서 항상 나의 환자는 나의 간호원을 통해 입원기간 동안에 간호를 받게되며 비번일때는 다른 간호원이 Primary Nurse가 세운 간호계획대로 도울 뿐이다. Primary Nurse는 특히 인간의 기본요구가 維持되도록 돕는데 있어서 靈的要求도 充足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Hospice Care를 하게 된다. Hospice란 중세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하루밤을 쉬어 가도록 마련된 숙박소에서 유래했으며 19C 중엽 아일랜드에서 수녀님들에 의해 일어난 운동 즉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臨終의 집을 마련하여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또 최후 臨終까지 가능한 모든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이었다. 근래에 와서는 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Hopeless의 암환자들을 위해 병원단위로 미국 영국등지에서 活潑히 일어나고 있다. Hospice Care를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병의 진전과 정보다는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써 대하여 편안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우며 인간의 기본욕구인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욕구를 充足시켜주고 더불어 환자의 가족도 激勵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환자가 Hospice Care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죽음의 단계를 이해하면서 침상옆에서 부단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말없이 지켜보거나 손을 붙들고 祈禱를 해주거나 원하는 청이 있을때는 가족 또는 담당사와 의논하여 베풀어주며 특별히 성직자를 원할때는 특수종교의 강요를 떠나서 환자의 종교를 존중하여 원하는 성직자를 오

도록 보호자를 통해 접촉시켜준다. 그리고 항상 보호자의 葛藤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간다. 그래서 Primary Nurse는 나의 환자의 영적요구에 필요한 도움을 항상 병원의 사회사업과 원목실 직원 및 성직자 혹은 신심단체에게 청하며 퇴원후에도 Hospice Care가 중단되지 않도록 나의 환자의 집에 전화 혹은 편지로 퇴원후 생활을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담당사의 처방을 받아 Home Care를 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Hospice Care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組織이 있으면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본 병원에서는 현실적인 간호인력난 가운데서도 Primary Nursing을 할 수 있도록 본 병원에 맞게 적용시켜 시도해볼때 간호원 스스로 많은 보람과 환자간호에 열의를 느끼며 환자와의 摩擦이 없어지고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또한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 또한 간호원 스스로의 잠재적인 전문 지식과 技術을 개발 적용해 나가므로써 유능한 간호인력을 確保해 갈 수 있었으며 병원적인 次元에서 유능한 인력확보가 되고 따뜻한 의료를 베풀수 있는 仁術의 장이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人間疏外의 사회속에서 각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간호방법을 摸索하여 이러한 Primary Nursing과 Hospice Care를 시도해 볼때 仔詳하고 전인적인 의료기관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